

경인매일

HOME 인천

인천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관계사업 진행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6.25 22:11



(인천=김정호기자)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구 관내 자녀와 아버지 40명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로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배영센터장)는 '다소다' 1회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월 25일(화요일)부터 일주일간 우쿠렐라 만들기 세트와 천연치약 만들기 세트를 배부했다. 가정 내에서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6월 25일 체험 활동을 마무리했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추억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고 말하며 "함께 만들고 소통하며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과학키트라고 했을 때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아이들이 과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본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접수를 구글 신청서로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또한 QR코드를 이용한 설문지로 제출하였다. 키트 수령을 위해 참여자의 방문이 있을 때에도 열체크와 위생점검에 철저히 신경썼다.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배영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계시는 인천 동구 관내 아버지들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센터에서는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녀 양육의 책임이 부와 모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올해 가족관계사업 아버지자조모임 ‘다소다’ 프로그램은 동구 관내 아버지와 자녀가 ‘다소다.애뜻하게 사랑하다.’의 의미가 실천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호 기자